

#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경영지출보상에서 나서는 문제

교수 박사 강철수

##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기업체들의 경영지출보상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을 주어야 하며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그 선결조건으로서 자체의 경영수입으로 경영지출을 보상하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론문에서는 선행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난 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영지출보상이 어떤 전제조건하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가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현시기 기업체들에서의 경영지출보상과 관련하여나서는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 2. 본론

### 2.1. 지난 시기 견해와 현재 논의되고있는 문제점

경영지출보상문제는 생산물수입분배가 순소득분배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소득분배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는데 따라 그 경제적내용이 달라진다. 지난 시기 경영지출보상은 생산물수입분배를 순소득분배방식으로 진행하는 조건에서의 경영지출보상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난 시기 순소득분배방식하에서 경영지출보상은 우선 생산경영활동과정에 소모된 물질적지출과 산로동지출을 생산물별로 경영수입을 통하여 화폐적으로 회수하는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생산물수입분배가 순소득분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지출의 경제적내

용들을 분석하여보면 잘 알수 있다.

도서 《회계학》에서는 경영지출은 경영수입을 이루는데 들인 비용으로서 기업소경영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제적내용과 부문에 따라 생산물판매지출과 공사인도지출, 류통지출, 봉사 및 운영지출, 부업경영지출, 기타 경영지출로 구분한다고 서술하였다.

생산물판매지출계시는 판매된 제품에 해당하는 판매원가를 계산하는 계시로서 차방에는 월말에 판매수입실적에 해당하는 판매원가를 확정하여 올리고 대방은 년도말에 판매원가를 수입계시와 맞세워 떨굴 때 계산하며 잔고는 년도중에는 차방 루계잔고를 가지다가 년말에는 가지지 않는다. 해당 달에 판매한 생산적지출실적은 해당 달까지 판매한 생산물의 원가(생산적지출실적)루계액에서 전달까지 판매한 생산물의 원가(생산적지출실적)루계액을 더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공사인도수입과 지출계산, 류통부문에서의 류통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계산도 원리적으로는 생산물판매수입과 생산물판매지출계산과 공통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생산물수입분배가 순소득분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경영지출에서 기본형태로 되는 생산물판매지출은 판매한 생산물의 원가를 루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여기에는 물질적지출과 산로동지출이 다같이 포함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지난 시기 순소득분배방식하에서 경영지출보상은 또한 원가보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도서 《독립채산제기업소의 재정관리》에서는 경영지출의 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독립채산제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자체의 수입에 의한 지출의 보상이다. 자체의 수입에 의한 지출의 보상이란 다름아닌 생산물의 원가보상이다. 사회주의기업관리에서 원가보상은 원가 그자체가 아니라 계산된 원가에 기초하여 자체의 수입으로부터 그것을 보상하고 재생산을 위한 원천을 마련하는것이다. 원가계산의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보다 정확히 보상함으로써 기업관리를 정상화하고 재생산의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생산물의 원가는 보상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면서 국가에 리익을 주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이다. 따라서 독립채산제에서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중시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단계에서 맞추지 못하는 채산이나 계획집행과정에 국가적사정으로 맞추지 못하는 채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자금으로 보상해주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 2.2. 경영지출보상의 의미

자체의 경영수입으로 경영지출을 보상할데 대한 문제는 지난 시기에도 제기되었지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현시기 경영지출보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경영수입분배를 소득분배방식으로 진행하는 조건하에서의 경영지출보상이라는것이다.

경영지출보상은 경영수입분배를 소득분배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순소득분배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

경영수입분배를 순소득분배방식으로 하는 경우 경영지출보상은 생산경영활동과정에 소비된 물질적지출과 산로동지출을 다같이 회수하는것을 넘두에 둔다.

순소득분배방식의 경영지출에는 원가표준항목에 속하는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요금 및 수송비, 생활비, 감가상각비, 일반비와 함께 판매과정에 지출되는 판매비 등 기타 경영지출도 포함된다.

경영수입분배를 소득분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경영지출보상은 생산경영활동과정에 소비된 물질적지출보상만을 회수하는것을 넘두에 둔다.

소득분배방식의 경영지출에는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요금 및 수송비, 감가상각비, 일반비는 포함되지만 생활비는 제외된다. 그리고 판매과정에 지출되는 판매비는 경영지출 일반이 아니라 생산물판매지출에만 포함된다.

소득분배방식의 경영수입분배에서 산로동지출은 계산된 생활비형태로 생산비와 공사비, 류통비와 봉사 및 운영비에 포함되었다가 후에 경영지출을 확정할 때 생산물판매지출, 공사인도지출, 류통지출, 봉사 및 운영지출에서 제외되어 소득분배대상으로 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의 총괄적인 경영지출보상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경영수입으로 경영지출을 무조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상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체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에 기초하여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게 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체들은 국가계획기관이 맞물려주는 중앙지표와 지방지표의 생산물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채산을 맞추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채산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체지표의 생산물들을 계획에 맞물려 생산하고 판매실현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채산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의 경영지출보상은 무조건적인 경영지출보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에 공장, 기업소들은 전문적인 생산이나 건설, 류통과 봉사 및 운영을 진행하였으므로 독립채산제의 요구에 따라 자체의 경영수입으로 경영지출을 보상하는 문제가 기본상 원가보상형태로만 제기되었으며 건설, 물자 및 상품류통, 봉사 및 운영부문에서의 채산을 맞추는 문제는 호상 독자적으로 존재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체들이 인민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품종의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적극 추동한다.

단일품종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서는 생산적지출보상이 곧 경영지출보상으로 된다.

그러나 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생산과 함께 건설공사, 류통, 봉사 및 운영활동도 진행하고 여러가지 품종의 생산물들을 생산하여 판매실현하는 조건에서 개별적인 품종의 생산적지출보상은 서로 각이하게 제기된다. 또한 경영활동전반과 관련한 일반비지출이 있는것과 관련하여 생산적지출보상이 곧 경영지출보상이라고 할수 없다.

경영수입에 의하여 경영지출이 보상되자면 우선 생산단계에서 생산물판매수입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적지출을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품종의 생산물에 대한 생산적지출합

계와 판매수입합계가 대비되어야 한다.

경영수입에 의하여 경영지출이 보상되자면 또한 기업체들이 생산활동만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류통, 봉사 및 운영활동, 기타 경영활동도 진행하는 조건에서 공사 인도지출, 류통지출, 봉사 및 운영지출, 기타 경영지출을 그 수입과 대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경영지출보상은 개별적품종의 제품생산에 대한 지출보상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제품생산과 건설공사, 류통, 봉사 및 운영, 기타 경영활동을 포괄하는 생산경영활동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성격의 경영지출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3. 경영지출보상의 방법론적문제

경영지출보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경영지출보상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은 자체의 경영수입을 원천으로 하여 경영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중요한 요구이다. 경영지출보상과 그 계산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물생산과 공업적성격의 작업수행, 건설공사와 류통 및 봉사운영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확정함으로써 진행할수 있다.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해당 기간에 발생한 경영지출가운데서 그 기간에 포함시킬 비용의 규모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비록 해당 결산기간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음결산기에 속하는 비용과 같이 해당 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시킬수 없는 비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해당 결산기간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지만 지불준비금과 같이 해당 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이 있다. 따라서 생산과 관련한 비용지출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에 따라 결산주기별로 갈라서 경영지출에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물생산, 건설 및 대보수공사, 생산물류통, 봉사 및 운영에 다같이 관련되는 일반비지출이나 여러가지 품종의 생산물판매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판매비지출인 경우에는 인민경제부문과 생산물종류에 따라 일반비와 판매비지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영지출보상규모에 반작용하는 요인들과 그것들의 결합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경영지출보상규모에 반작용하는 요인은 경영수입이다. 경영지출과 경영수입은 일반적으로 비례관계에 있으며 개별적인 원가항목은 조건적불변비로 되어 경영수입변동과 무관계하기도 하다. 경영지출보상은 경영수입을 원천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경영지출보상규모 타산이란 곧 그에 따르는 경영수입규모타산과정이다.

이러한 경영수입규모는 생산지표에 따르는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지표에는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체지표가 있으며 생산물판매가격에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합의가격이 적용된다. 중앙지표와 지방지표의 생산물에는 국가가 유일적으로 제정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적용되지만 기업체지표의 생산물에는 합의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생산물지표별로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따르는 경영지출보상을 위한 경영지출규모를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의 생산조직과 생산기술공정상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조직과 생산기술공정상특성에 맞게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할데 대한 요구는 생산물생산과 공업적성격의 작업수행과정이 원가형성과정인 동시에 곧 생산기술공정의 수행과정이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생산물생산과 공업적성격의 작업수행에서 원가형성과정이 곧 생산기술공정의 수행과정이므로 생산기술공정상특성을 옳게 반영하여 원가를 계산할 때만이 생산물원가와 경영지출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의 생산조직과 생산기술공정상특성에 맞게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기업체의 구체적인 기술공정상특성과 생산조직형태를 고려하여 경영지출보상방식을 옳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경영지출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물판매수입을 통하여서는 생산물판매지출이, 공사인도수입을 통하여서는 공사인도지출이, 류통수입을 통하여서는 류통지출이, 봉사 및 운영수입을 통하여서는 봉사 및 운영지출이 개별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영지출이 경영수입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보상될수 있다.

경영지출보상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반비규모를 바로 규정하고 경영수입형태별로 정확히 배분하여야 한다.

경영수입형태별로 경영지출을 보상하는데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생산과 건설, 류통과 봉사 및 운영에 총괄적으로 관련되는 일반비의 규모확정과 그 배분방법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이다. 그것은 경영활동전반에 총괄적으로 관련되는 일반비의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고 일반비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경영활동의 개별적인 형태들에서 경영지출을 보상하는 문제가 옳바로 해결될수 있기때문이다.

일반비는 기관, 기업소 및 직장(작업반)의 관리운영과 생산 및 류통과정의 정상적인 보장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경영지출보상을 위한 일반비계산에서는 그 총체적인 규모를 확정하는 문제, 일반비를 생산비와 함께 공사비, 류통비, 봉사 및 운영비에 배분하는 규모계산방법론 그리고 일반비배분에 대한 종합계산방법론을 해명하여야 한다.

경영지출보상을 위한 일반비를 바로 계산하자면 우선 일반비의 총체적인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일반비는 그 포괄범위가 넓고 경영지출구성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비를 절약하는것은 기업소에서 경영지출을 줄이고 내부축적을 끊임없이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비의 총체적인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일반비에 속하는 세분항목들을 정확히 종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일반비의 세분항목에는 사무비, 통신비, 사료료, 비품비, 려비, 로동보호물자비, 건물관리비, 이동작업비, 공구지구손모비, 정보제품구입 및 봉사비, 설계 및 기술도서비, 기능향상비, 실험실운영비, 합숙운영비, 자재제품보관비, 수송수단유지비, 문화사업비, 출퇴근비, 상품안내선전비, 상품자연감모비, 국가수수료, 대외선전비, 대외사업비, 선원유지비, 국제통신비, 재외기관유지비, 기타 일반비가 속한다.

경영지출보상을 위한 일반비를 바로 계산하자면 또한 생산판매활동, 공사인도활동, 류통활동, 봉사 및 운영활동에 포함시킬 일반비배분방법론을 바로 확립하여야 한다.

기업체가 생산판매활동외에 공사인도활동, 류통활동, 봉사 및 운영활동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일반비는 생산물생산과만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기업체경영활동전반과 관련되므로 일반비배분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영수입형태별에 따르는 경영지출보상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다.

일반비배분규모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는데서는 일반비배분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일반비지출의 구성내용을 분석하여보면 그것은 기업체경영전반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이므로 일반비배분기준은 생산물생산활동, 공사인도활동, 류통활동, 봉사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일반비계획기준, 노동시간, 생산노동자들의 기본생활비, 직접비 또는 기본비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수 있다.

#### ① 일반비계획기준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계산방법

일반비계획기준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지출된 일반비총액과 경영수입실적에 기초한 일반비계획기준총액과 대비하여 결수를 계산하고 이 결수를 경영수입형태별 실적에 기초한 일반비계획기준에 곱하여 경영수입형태별로 포함시킬 일반비를 계산한다.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일반비배분액}}{\text{일반비배분액}} = \left(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단위당 일반비계획기준}}{\text{일반비계획기준총액}} \times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실적}}{\text{일반비계획기준총액}} \right) \times \text{결수}$$

이 방법은 경영수입형태별로 일반비지출기준이 정확히 제정되어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계산방법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지출된 일반비총액과 총노동시간을 대비하여 노동시간당 일반비를 계산하고 이것을 경영수입형태별 노동시간에 곱하여 경영수입형태별로 포함시킬 일반비를 계산한다.

$$\frac{\text{노동시간당 일반비}}{\text{일반비}} = \frac{\text{실제로 지출된 일반비총액}}{\text{총노동시간}}$$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일반비배분액}}{\text{일반비배분액}} =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노동시간}}{\text{총노동시간}} \times \frac{\text{노동시간당 일반비}}{\text{일반비}}$$

이 방법은 경영수입형태별로 노동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기업체들에 적용된다.

#### ③ 기본생산노동자들의 기본생활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계산방법

기본생활비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로서 여기에는 도급생활비와 정액생활비가 포함된다.

기본생산노동자들의 기본생활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지출된 일반비총액과 생산노동자들의 기본생활비총액을 대비하여 기본생활비 1 000원당 일반비를 계산하고 이것을 경영수입형태별 기본생활비에 곱하여 경영수입형태별로 포함시킬 일반비를 계산한다.

$$\frac{\text{기본생활비 1 000원당 일반비}}{\text{일반비}} = \frac{\text{실제로 지출된 일반비총액}}{\text{기본생산노동자들의 기본생활비총액}} \times 1 000$$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일반비배분액}}{\text{일반비}} =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기본생산로동자들의 기본생활비}}{\text{기본생활비}} \times \frac{\text{기본생활비 1 000원당 일반비}}{1 000}$$

이 방법은 기업체에 기본생산로동자들의 수가 많으며 그들의 기본생활비가 경영지출 구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기업체들에 적용할수 있다.

#### ④ 직접비 또는 기본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계산방법

직접비는 개별적제품의 원가에 직접 포함시킬수 있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와 생활비가 포함된다.

기본비는 생산물의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부대비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여기에는 원료 및 기본자재비, 보조자재비, 기술공정용연료 및 동력비, 기본생산로동자들의 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직접비 또는 기본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지출된 일반비총액과 직접비 또는 기본비총액과 대비하여 직접비 또는 기본비 만원당 일반비를 계산하고 이것을 경영수입형태별 직접비 또는 기본비에 곱하여 경영수입형태별로 포함시킬 일반비를 계산한다.

$$\frac{\text{직접비 또는 기본비 만원당 일반비}}{\text{일반비}} = \frac{\text{실제로 지출된 일반비총액}}{\text{직접비 또는 기본비총액}} \times 10 000$$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일반비배분액}}{\text{일반비}} = \frac{\text{경영수입형태별 직접비 또는 기본비 만원당 일반비}}{\text{직접비 또는 기본비}} \times \frac{1}{10 000}$$

이 방법은 직접비 또는 기본비가 경영지출구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기업체들에 적용할수 있다.

경영지출보상을 위한 일반비를 바로 계산하자면 또한 생산판매활동, 공사인도활동, 류통활동, 봉사 및 운영활동에 포함시킬 일반비배분에 대한 종합계산방법론을 바로 확립하여야 한다.

일반비배분에 대한 종합계산에는 일반비계시, 생산물판매지출계시, 공사인도지출계시, 류통지출계시, 봉사 및 운영지출계시가 리용된다.

일반비계시는 일반비의 발생과 그 배분정형을 반영하는 재산성격의 계시로서 계시차방에는 일반비의 발생액을 올리고 대방에는 일반비의 배분액을 올린다.

생산물판매지출계시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생산물판매지출액과 년말 그 청산정형을 반영하는 지출 및 분배성격의 계시로서 차방에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생산물판매지출루계액을 올리며 대방에는 년도말 그 청산정형을 올린다.

공사인도지출계시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공사인도지출액과 년말 그 청산정형을 반영하는 지출 및 분배성격의 계시로서 차방에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공사인도지출루계액을 올리며 대방에는 년도말 그 청산정형을 올린다.

류통지출계시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류통지출액과 년말 그 청산정형을 반영하는 지출 및 분배성격의 계시로서 차방에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류통지출루계액을 올리며 대방에는 년도말 그 청산정형을 올린다.

봉사 및 운영지출계시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봉사 및 운영지출액과 년말 그 청산정형을 반영하는 지출 및 분배성격의 계시로서 차방에는 년도중에 발생하는 봉사 및 운영지

출루계액을 올리며 대방에는 년도말 그 청산정형을 올린다.

일반비계시, 생산물판매지출계시, 공사인도지출계시, 류통지출계시, 봉사 및 운영지출계시의 잔고는 년도중 차방에 남으며 년도말에는 전액 배분되거나 청산되기때문에 잔고를 가지지 않는다.

경영지출보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둘째로, 경영수입규모를 바로 타산하는것이다.

경영수입규모를 바로 타산하는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는 기업체들에서 경영수입으로 경영지출을 무조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체들의 경영지출이 국가예산지출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체의 경영수입에 의하여 전적으로 보상되기때문이다.

경영수입타산에서 중요한것은 생산물판매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생산물판매수입규모를 바로 타산하는것이다. 그것은 기업체의 경영지출과 경영수입에서 생산물판매지출과 판매수입이 기본으로 되기때문이다.

생산물판매지출보상을 위한 판매수입규모에는 생산물판매가격과 함께 생산물판매량이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물판매가격이 사회적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설정되므로 생산물판매수입규모타산은 생산물판매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생산물판매량확정에 귀착된다.

기업체들에서 생산물판매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생산물판매수입은 손익한계분석을 통하여 타산한다.

손익한계란 경영활동상리익과 손실이 갈라지는 경계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생산물에서는 계획손실제품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관리실천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개별적품종이나 기업소적인 범위에서 능력대로 생산을 못했거나 계획을 미달한 경우에 생산물판매액(판매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손실이 생긴다. 그것은 기업체범위에서 지출되는 조건적불변비가 일정한 크기로 고정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체들은 경영지출을 보상하기 위하여 경영손실과 경영리익의 한계점을 따져보게 된다.

경영손익한계분석은 경영리익과 경영손실의 경계점에서의 판매액을 계산하고 대비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경영손익한계점은 총체적인 비용지출이 생산물판매액보다 낮거나 전부 가변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체적인 비용지출속에 어느 정도의 조건적불변비가 포함되고 생산물판매액이 총체적인 비용지출을 넘어설 때에만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지출하는 비용에는 생산물판매액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규모로 발생하는 조건적불변비와 생산물판매액의 증감에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가변비가 있다. 조건적불변비는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비용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원가요소로서 여기에는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정액생활비, 재산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가변비는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가 변동하는 원가요소로서 조건적불변비와 함께 기업체의 경영리익확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체의 생산경영활동과정에는 이러한 비용지출로 하여 생산물판매수입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는 경영손실로 되고 그 규모를 넘어서면 경영리익이 발생한다. 즉 경영손익한계를 확정하는 문제는 기업체들에서 리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는 문제,



기업전략에서 목적인 리윤을 확정하는 문제로 되는것과 관련하여 기업체의 경영지출보상과 실리보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영손익한계점은 해당 기업체의 리익조성가능성분석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된다. 경영손익한계점이 높은 기업체들에서는 생산물판매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리익의 감소는 물론 인차 경영손실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경영손익한계점이 낮은 기업체들에서는 생산물판매수입이 얼마간 줄어들어어도 어느 정도의 리익을 얻을수 있으며 생산물판매수입이 조금만 올라가도 리익증가폭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경영손익한계점이 낮다는것은 기업체리익조성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경영손익한계점이 높다는것은 기업체리익조성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산수준이 다른 여러 기업체사이 리익조성가능성의 비교라든가 동일한 기업내부의 부문별, 제품별리익조성가능성을 검토할 때 해당 기업의 경영손익한계점을 분석해보면 기업체들의 리익조성가능성에 대한 옳은 평가를 내릴수 있다.

기업체들에 대한 경영손익한계분석을 통하여 경영손익한계점에서의 생산물판매수입, 생산물판매수입이 일정할 때 리익규모, 일정한 리익을 얻는데 필요한 생산물판매수입, 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의 경영손익한계점에서의 생산물판매수입, 가변비가 변화되는 경우 경영손익한계점에서의 생산물판매수입, 조건적불변비가 변화되는 경우 경영손익한계점에서의 생산물판매수입, 다품종생산기업체들의 경영손익한계점에서의 생산물판매액과 같은 내용을 알수 있다.

기업체의 생산경영실천에서는 한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드물며 여러 생산공정이 결합되어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따라서 기업전체의 생산물판매수입총액이 같다고 하여도 매개 부문의 조건적불변비, 가변비률이 다르기때문에 제품별로 판매비률이 변하면 기업전체의 경영손익한계점도 달라진다. 이때에는 먼저 매개 품종별로 가변비률을 분석하고 그것을 제품별판매수입의 비율로 수정하여 기업전체의 평균가변비률을 계산한다.

레컨대 어느 기업체에서 Ⅰ, Ⅱ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고있으며 기업전체의 조건적불변비가 350원, 그 가변비률이 Ⅰ제품 40%, Ⅱ 제품 60%라고 할 때 생산물판매비율, 평균가변비율, 경영손익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제 품	생산물판매액	생산물판매비율(%)	조건적불변비	가변비율(%)
Ⅰ	500	62.5(500/800)	—	40
Ⅱ	300	37.5(300/800)	—	60
계	800	100	350	47.5

$$\text{생산물 판매비율비} = \frac{500}{800} : \frac{300}{800} = 62.5 : 37.5$$

$$\text{평균가변비율} = 0.40 \times 0.625 + 0.60 \times 0.375 = 0.25 + 0.225 = 0.475$$

$$\text{손익한계점} = 350 \div (1 - 0.475) = 667(\text{원})$$

$$\text{경영리익} = \text{생산물판매수입} - \text{손익한계점} = 800 - 667 = 133(\text{원})$$

여러가지 품종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서 가변비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물판매비율이 높아지면 경영손익한계점이 높아지며 그렇게 되면 생산물판매수입이 일정하다고 해도 경영리익은 적어진다.

우의 실례에서 가변비율이 높은 L제품의 생산물판매비율을 높여 경영손익한계와 리익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품	생산물판매액	생산물 판매비율(%)	조건적 불변비	가변비율(%)
Г	450	56.25(450/800)	—	40
L	350	43.75(350/800)	—	60
계	800	100	350	48.75

$$\text{생산물 판매비율비} = \frac{450}{800} : \frac{350}{800} = 56.25 : 43.75$$

$$\text{평균가변비율} = 0.40 \times 0.5625 + 0.60 \times 0.4375 = 0.225 + 0.2625 = 0.4875$$

$$\text{손익한계점} = 350 \div (1 - 0.4875) = 682.93(\text{원})$$

$$\text{경영리익} = \text{생산물판매수입} - \text{손익한계점} = 800 - 682.93 = 117.07(\text{원})$$

이 경우 경영손익한계점이 15.93원만큼 높아졌고 경영리익이 15.93원만큼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변비율이 낮은 품종의 판매비율이 높아지면 경영손익한계점이 낮아지고 경영리익은 높아진다.

우의 실례에서 가변비율이 낮은 Г제품의 생산물판매비율을 높여 경영손익한계점과 리익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품	생산물판매액	생산물판매비율(%)	조건적불변비	가변비율(%)
Г	550	68.75(550/800)	—	40
L	250	31.25(250/800)	—	60
계	800	100	350	46.25

$$\text{생산물 판매비율비} = \frac{550}{800} : \frac{250}{800} = 68.75 : 31.25$$

$$\text{평균가변비율} = 0.40 \times 0.6875 + 0.60 \times 0.3125 = 0.275 + 0.1875 = 0.4625$$

$$\text{손익한계점} = 350 \div (1 - 0.4625) = 651.16(\text{원})$$

$$\text{경영리익} = \text{생산물판매수입} - \text{손익한계점} = 800 - 651.16 = 148.84(\text{원})$$

이 경우 경영손익한계점이 15.84원만큼 낮아졌고 경영리익은 15.84원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계산을 종합해보면 가변비율이 낮은 생산물의 판매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활동결과에 보다 유리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경영손익한계분석은 판매가격, 원자재가격, 평균생활비, 전력요금 등의 변동이 적고 조건적불변비와 가변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기업체의 수익성정도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경영손익한계점분석의 중요성과 의의를 잘 알고 앞으로 기업체들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면 경영수입에 의하여 경영지출을 총괄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와 기업체, 종업원들의 경제적리익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다.

### 3. 결론

자체의 경영수입에 의한 경영지출보상은 기업체들에서 경영지출보상규모와 경영수입규모를 바로 타산하는것을 통하여서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경영지출보상에 대한 리론적, 방법론적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경영지출, 경영수입, 경영지출보상